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편법 없어야”

김승환 교육감 “순수 고졸출신 대상으로 한 시험 대학 진학자들 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 회의에서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에 편법이 끼여들 여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어지자 대학 진학 사실을 숨기고 지방공무원 고졸 경력채용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순수 고졸출신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대학 진학자들이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고졸 경력채용 시험은 정말 이 제도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응시하는 게 맞다”면서 “민원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졸 출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대학 진학자들의 편법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학력세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편법은 걸러내야 한다면서 주무과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시험문제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수 8명이 참여하는 검토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급의 수능 출제 방식으로는 오류를 제로화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맑고 포근한 은파호수공원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4월 봄을 맞아 군산은파호수공원의 수변로를 걷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토지원단을 교수들로만 구성해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면서 “오히려 직전 해 수능에서 과목별 고득점을 받은 학생 중에 검토위원

을 선발해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교수들은 수능문제 오류를 못 찾어도 이 학생들은 예리하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고

도교육청, 주민참여사업 온라인 투표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9개 사업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7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이달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참여 제안사업 온라인 투표시스템(<http://yasan.jbe.go.kr>)을 직접 접속하거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 알림창에서 “투표참여”를 클릭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전북대, 미얀마 다곤대학 선진교육 전수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 4년간 매년 4억 16억원 지원받아 미얀마 약용식물 보존 활용 위한 교육·연구역량 강화기술보급 사업 수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얀마 안곤에 있는 다곤대학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앞으로 4년간 매년 4억씩 총 16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얀마 약용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술보급 사업을 수행한다.

식물유전자원과 천연자원 부국 중 하나인 미얀마는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 인력 부재로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미얀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는 한약자원학과 방극수 교수가 사업 책임을 맡아 다곤대학 식물학과 리모델링을 통해 식물 유전자원 보존·활용 분야 전문성 증대와 자립기반 확보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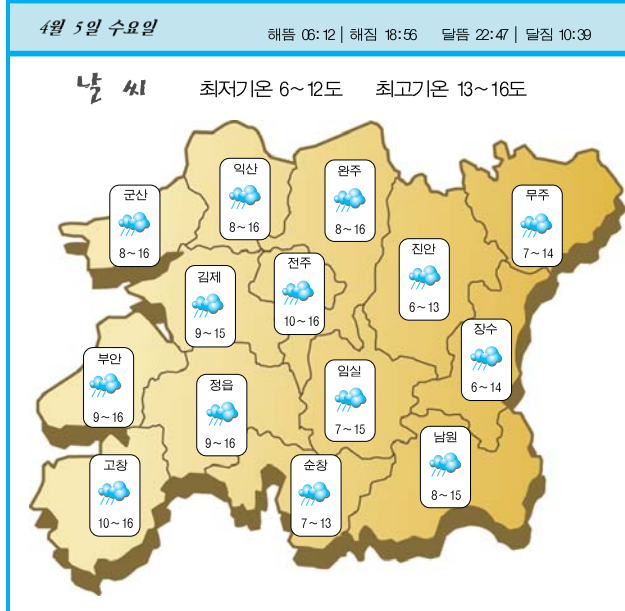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전북대는 교육역량과 연구·개발 역량강화, 유용식물자원 보존·활용 기술보급 등 세 가지로 미얀마 다곤대학의 경쟁력을 이룰 계획이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식물학과의 교육과정개편, 교육여건개선, 교수요원양성 및 역량강화, 학생역량강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 분야에서는 유용식물자원 센터를 설치·운영해 관련 분야 연구와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지도와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유용식물자원 보존·활용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책임자인 방극수 교수(한약자원학과)는 “이번 사업은 현지 수요를 반영한 미얀마 고등교육기관의 리모델링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얀마의 유용식물자원 활용 분야 발전과 더불어 전북대가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기관으로서 역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도교육청, 고교생 체험중심 역사교육 추진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역사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의 역사 흥미도를 제고하며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험중심 역사교육을 추진한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를 맞아 형인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7월말에 교사와 고 1학년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국의 역사체험학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발대상 학생 중에는 30%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7월 30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하얼빈 등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자취와 경로를 탐방한다.

탐방팀은 전문가와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사

를 공유하고 독립운동사 관련 독서토론과 안중근 의사와 함께하는 평화의 방 등을 기획한다. 탐방 전 사전교육을 통해 역사태극의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학생들의 특기를 살린 창의적인 창작공연을 기획하여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발표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국외역사체험 추진을 위해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17팀을 선발하여 두 차례의 사전모임을 갖고 세부적인 탐방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달 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군산선유도와 익산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답사는 2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정혜은 기자

대입진학지도 역량강화 위한 고교 교감 연수

전라북도교육청은 대입진학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고교 교감 연수를 3일, 4일 양일간 남원 더 스위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도내 고교 교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위학교 대입진학지도에 관한 연계 지도 방안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7년 대입진학지도 기본 계획 안내 등이 이뤄졌다.

1일차에는 이문성 대입담당 장학사의 ‘2017 대입업무 기본계획 안내’와 이정모 서울시험과학관장의 ‘인공지능과 로봇시대의 과학교육’ 특강 및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의 ‘역동적인 학생부, 수업 속에 답이 있다’는

내용의 특강이 이뤄졌다.

2일차에는 대입지원단의 ‘대입제도 이해 및 2018학년도 대입전형 안내’와 이인엽 도교육청 장학사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이해’, 권영창 군산고 교감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현장 적용 및 대입진학지도지원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창출과 맞춤형 대입진학지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달라진 모습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장착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